

지방자치·종합

27일 취임 서재홍 조선대 신임 총장 인터뷰

“섬김 리더십 펼쳐 전국 15위권 대학 진입”

서재홍 조선대학교 제15대 총장이 오는 27일 취임한다. 광주일보는 20일 서 신임 총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서 총장은 선거로 인해 흐트러진 대학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학합을 도모하고, 대학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총장은 인터뷰 내내 일체의 권위를 버린 ‘섬김의 리더십’과 대학 및 지역 발전이라는 민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1년새 두차례 선거를 치르는 등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총장에 선임됐는데?

▲조선대는 제15대 총장 선거를 전체 구성원이 일치된 민주적 역량을 발휘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평온하게 치러냈다. 구성원들의 역량에 경의를 표하고, 대학의 장래를 걱정해 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제 (제)자신을 버리고 오직 조선대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4차례 선거에 나선 만큼 어느 후보보다 지지층이 두텁고, 선거 참모도 다양했다. 하지만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한 인사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 조선대가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헌신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는 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공평한 인사 시스템 통해

구성원 능력 창출 극대화



모델링을 실시해 차별화된 연구중심 병원으로 육성해 특화하겠다.

-조선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5대 핵심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싶은 대학’, ‘근무하고 싶은 대학’, ‘기부하고 싶은 대학’을 위한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는 데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자혜롭게 극복해 우리 대학 설립정신을 기반으로 3대 건학이념인 영재교육·생산교育·개성교育을 실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개교 100주년을 바라보며 세계 속의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로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법과 경영혁신방안은?

▲우선적으로 비용성 예산절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가정 대학경영추진단을 설립하고 영·유아원 및 사이버 교육원 설립, 명품 전시회 소금판드 조성 등을 통해 재정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겠다. 외부 발전기금을 확충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산학협력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률이 대학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는데.

▲미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교육

사업성 높은 곳 병원 신축

의료관광시대 대비할 것

환경 철단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 특히 미래 산업 트렌드와 지역 특화산업 분석을 토대로 한 특성화 학문분야를 도출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충분한 장학금 확보를 통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취업 부총장제를 도입해 획기적인 취업을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창업동아리 및 창업회사 육성, 해외 취업률 제고, 기업연수제도 운영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10년 이상 총장이 되기 위해 준비해왔다. (서 총장이) 구상하고 있는 총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조선대는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민립대학이다. 설립정신을 계승해 경쟁력 있는 대학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는 총장이 되겠다. 학과 안정을 통한 역량 결집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도덕과 학문적 리더로서, 또한 경영과 문화창조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사회는 물론 교수원회의,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단체, 국가기관 등 모든 단위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니어 인턴십 10명 중 9명 취업”

전남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오주승)가 만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중인 ‘시니어 인턴십’에 참가한 10명 중 9명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중기센터는 올 들어 9월까지 62명의 노령인력을 지역 내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시켰다. 이 중 54명이 3개월간 인턴 기간이 끝난 이후 상시근로자로 전환돼 계속고용률 87%를 기록했다.

계속고용률은 인턴 참여 노령인력 중 3개월의 인턴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업이 계속 고용해 6개월 이상 상시근로계약을 맺는 비율을 뜻한다.

이처럼 계속고용률이 높은 것은 체용

기업을 찾아 현장에서 참여 근로자들과 기업 관계자들간 현장간담회를 여는 등 현실적인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센터는 지난 19일에도 강진군 강진읍

(주)청립농원을 방문, 현장간담회를 갖고 노령 인력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오주승 본부장은 “인턴으로 참여한 노령 인력이 정식 근로자로 전환돼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에 참여한 회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은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pa.kr)나 전화(061-282-9774)로 문의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후보단일화로 1대1구도 만들어 정권교체”

박지원 대표 화순 강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는 정권교체”라며 “후보 단일화로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김대중-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집권세력이 하나로 통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화순 김대중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리는 ‘김대중민주평화아카데미 초청’ 강연에 앞서 20일 배포한 원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교체의 방법으로 민주당의 단결과 연합연대를 강조했다”며 “모두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는 친인척과 측근비리로 불행한 결말을 맞았기 때문에 국민이 이번에는 ‘맑은 대통령’을 바랄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나타나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후보단일화의 방식을 말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협력적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고 이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대통령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결국 국민의 힘으로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점 인정하고

소통하며 주어진 일 충실히 하다보면…”

이춘문 시의원, 강 시장에 쓴소리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현상’을 예로 들면서 “안철수 후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주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이외에 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큰 사람의 반열에 떴다”며 “소통하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 보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강 시장에게 ‘통 큰 사과’와 ‘시원한 사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의 발언은 ‘깜코 사태’를 둘러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책임공방에 대해 개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행부를 구성하겠다. 또 학연, 지역, 혈연을 초월한 능력 위주의 공평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 창출을 극대화할 생각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선거 후에 학회보다는 반복과 대립으로 장기간 대학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대책은 있는가?

▲지금 조선대 구성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루만지고 치유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사회, 교직원 및 학생들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시스템을 축구하고, 구성원들이 핵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실시하겠다. 아울러 총장의 권한을 분산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할 생각이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학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임기 4년 동안 추진할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선거 공약으로 설립정신 계승과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미래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취업률 제고,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화 프로그램 활성화, 대학평가 15위권 재진입을 위한 교수 연구환경 조성과 산학협력,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조성 등 5대 대학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화해와 소통, 혁신과 통합

1949년 여수 출생
Univ. of Texas M.D.Anderson 암센터연구교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원장
대한병리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의 섬김 리더십을 바탕으로 반드시 대학평가 전국 15위권을 달성하겠다.

-KTX 개통을 앞두고 조선대 제2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병원 신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조선대병원은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병원을 신축해 의료관광시대에 대비하고, 기존 진료센터를 활성화해 경쟁력이 있는 특수 진료센터를 신설하겠다. 또한 병원 행정동을 신축하고, 기존 병원의 공간 재조정과 리

환경 철단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 특히 미래 산업 트렌드와 지역 특화산업 분석을 토대로 한 특성화 학문분야를 도출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충분한 장학금 확보를 통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취업 부총장제를 도입해 획기적인 취업을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창업동아리 및 창업회사 육성, 해외 취업률 제고, 기업연수제도 운영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10년 이상 총장이 되기 위해 준비해왔다. (서 총장이) 구상하고 있는 총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조선대는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민립대학이다. 설립정신을 계승해 경쟁력 있는 대학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는 총장이 되겠다. 학과 안정을 통한 역량 결집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도덕과 학문적 리더로서, 또한 경영과 문화창조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사회는 물론 교수원회의,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단체, 국가기관 등 모든 단위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 옥션

www.dawaauction.co.kr

다와 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 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 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의 보수교육

◎수시모집증(기수별 선학순 30명)

◎국내 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물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010-9731-8949

(차평동랜드피아 O/P 1층)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2012-09-21

</